

민주주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 바로 그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했지. 이 말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잘 설명하고 있어. 대체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

민주주의의 뜻 - 국민이 주인이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막상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민주주의란 무슨 뜻이고, 민주 정치란 어떤 정치일까?

국민이 주인인 정치,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 즉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 정치야. '국민의 정치'란 나라의 주인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란 뜻이야. '국민에 의한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나랏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뜻이야. 자유와 평등, 즉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인간 존중이 시작되지. 민주 정치란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야.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행하는 정치이다.

독재 정치는 이래서 싫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행해지지만,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국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정치를 해. 국민들은 존중 받지 못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말할 자유도 없지. 독재자와 독재자 주변 사람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 당연히 불평등한 나라가 돼.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니, 정말 멋진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다행이야. 우리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을 겪었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어. 그런데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오늘날과 다른 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 첫째,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는 거야. 아테네는 작은 **도시**로 이뤄진 나라여서 시민들이 직접 모여 나랏일을 결정하는 게 가능했거든. 이렇게 모두 모여 직접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러. 둘째,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 셋째,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랏일을 맡길 사람을 추천을 통해 뽑거나 서로 돌아가면서 나랏일을 맡았어.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왕과 귀족을 내쫓았어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곧 사라졌어. 이후 대부분 왕이나 귀족이 나라를 다스렸지. 하지만 왕이나 귀족의 횡포가 심해지자, 사람들은 시민 혁명을 일으켜서 왕과 귀족을 내쫓았어.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주목!

시민 혁명 후에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 심지어 **투표**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여성, **노동자**, 농민과 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할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어. 덕분에 오늘날 많은 나라에선 여성과 남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었어. 물론 현대의 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겠지?



선거할 권리를 달라!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선 일찍부터 **선거**를 통해 **의회**의 의원들을 뽑아 왔어. 그런데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엔 귀족과 부자들만이 선거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야. 이 운동은 1838년부터 10년간 계속되었고, 결국 노동자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지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는 **민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와 제도가 필요해. 과연 어떤 **원리와 제도**들이 필요할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

먼 옛날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고, 그건 신의 뜻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즉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말해. 주권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지.



1.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정치를 대신할 대표를 뽑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힘들어.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이런 걸 국민들 대신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대의 민주 정치'라고 하지. 하지만 단위가 작을 경우, 모든 사람이 모여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하는 곳도 있어.



2. 대의제의 원리: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에 참여한다.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해

헌법이 정치를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헌주의'야.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거든. 헌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멋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



3. 입헌주의의 원리: 헌법이 정치를 하는 기준이 된다.

힘을 나누어 놓아

하나의 국가 기관이 강한 힘을 가진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위험이 커져. 그래서 힘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는데, 이것 '권력분립'이라고 해. 힘, 즉 권력을 나누어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지.



4.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로 나누어 놓는다.

우리 고장은 우리가 다스려

중앙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지방 자치'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 지방 자치는 정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거든. 또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제도야.



5. 지방자치제의 원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스스로 다스린다.

민주적인 결정 방법 -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뭐지?

우리 반에서 이번 주말에 어디로 체험 학습을 가야 할지 결정하려고 해. 어떤 친구들은 미술관에 가자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박물관**에 가자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걸까?

대화하고 타협해야 해

먼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해야 해. 토론이란 무언가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논의하는 걸 말해. 타협은 다름이 있을 때, 서로 양보하며 의견 차이를 줄여 가는 거고,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힘이 약한 사람의 의견은 무시될 게 뻔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워. 학급에서도 친구들이 함께 자유롭게 평등하게 토론하며 의견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해.



6. 민주적으로 해결: 대화(토론)→타협→합의→준수/이행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남자와 여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생김새뿐 아니라 생각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지, 그래서 **tolerance(용인)**가 필요한 거야. **tolerance**란 프랑스어로 관용, 인내라는 뜻이야. 내 생각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말이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내 생각만을 강요한다면, 민주적인 결정을 위한 토론도 힘들 거야.



7.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만 소수도 존중해야 해

아무리 토론을 열심히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그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지.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가 선택한 의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보다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거지.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다수의 뜻이라고 해서 소수를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해.

8.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